코로나19의 위기를 성공적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기회로 바꾸려면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탈탄소 경제·사회를 향해 나아가던 에너지전환 열차가 코로나19 장애물을 만나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충격은 전래 없이 큽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에너지수요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올해 약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때보다 7배 이상 큰 것입니다. OPEC에 따르면 대표적인 에너지, 석유의 수요는 지난해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력수요 역시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공황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국내 에너지업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 수요와 수출이 감소하고 정제마진은 악화되었으며, 국제 유가 급락으로 보유한 원유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력수요가 대폭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해서 지난 5월에는 원전의 출력 감발이 이뤄지는 새로운 변화도 생겼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코로나19가 에너지 산업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는 말처럼 지구의 공기는 맑아지고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코로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교통·산업·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 축소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 3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치 대비 41.7% 줄었고, 지난 3월 달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 역시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치가 13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에만 몰두해 온 인간에게 자연과의 공존·공생의 길을 고민하도록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장기적인 회복력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 대응 투자를 통해 미래 위험을 예방하고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가속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확대 외에도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연대와 공정한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이 시사하고 있듯이 에너지전환의 부정적인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했던 패턴에서 벗어나고,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한 비용분담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